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가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조 하 님

최 연 실†

상명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가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의 파악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수행을 위해 서울 및 경기 소재 9개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44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상관분석,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부부관계는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부부관계와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이 인지한 부모의 부부관계의 질에 따라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이 달라지고, 그 관계에서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교육이나 상담 장면에서 부모의 부부관계 향상과 더불어 자녀의 정서지능을 강화, 활용할 수 있는 접근법이나 전략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주요어 : 대학생, 부모의 부부관계,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 정서지능

* 이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최연실 /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

Tel: 02-2287-5317 / E-mail: yschoi@smu.ac.kr

서론

이성교제는 청년기의 발달과제로서 중요하고, 성인기의 친밀감 형성에 토대를 제공한다. Erickson(1950)에 의하면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중 성인초기의 중요 발달과업은 이성과의 관계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다(정옥분, 2004에서 재인용). 이러한 발달과업에 실패할 경우 고립감과 공허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성인초기에 청년들이 이성과의 관계를 잘 수립하는 경험이 강조되고 있다.

이성교제는 애정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며, 이성교제에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교제 대상자 서로가 만족을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 만족스러운 이성교제는 주관적인 행복감을 증진시키나(이수연, 2010), 친밀한 이성교제를 하지 못하거나 이성교제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적응상의 문제나 우울 등의 정서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이복동, 2000). 이와 같이 이성관계는 성인 초기의 심리적, 발달과정에서 핵심적인 대인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성교제는 배우자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며, 결혼 이후의 부부 관계를 예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차정화, 전영주, 2002). 이성교제는 성관계, 만족 및 사랑에 대한 개입이나 유지, 결혼과 보편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현대 결혼의 상당 부분이 이성교제에서 결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성교제가 성인기뿐만 아니라 성인기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홍대식, 2005). 한편, 결혼 전의 이성교제에서 경험한 갈등과 부정적 정서 등이 이후의 결혼생활의 질과 적응을 예측한다(김민녀, 채규만, 2006; 홍대식, 2005). 따라서, 이성관계 만족과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성인기 이후의 삶과 그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작업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에서는 이성관계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강수진, 최영희, 2011; 김나리, 2002; 김민정, 2016; 김희경, 심혜숙, 이동훈, 2012; 민순옥, 2009; 박나현, 2016; 박선미, 박경, 2003; 이설아, 박기환 2013; 최경숙, 2014). 이러한 변인들 중에서 특히 주목 받는 것이 갈등해결이다. 갈등해결은 이성교제의 만족과 관련되는 요인으로 서 연구적 관심의 대상이었다(김나리, 2002; 김나영, 2003; 허선이, 2005; 황여주, 2013). 이성교제 중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때때로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관계를 살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이와 연관해서, 갈등해결전략은 바로 이러한 갈등이 일어난 상황에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선택하는 방법과 행동이다(Unger et al., 1998).

갈등해결전략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성관계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나리, 2002). 또한, 기혼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혼만족도 연구에서도 갈등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행동을 많이 할수록 자신은 물론 상대방의 결혼 만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화, 고재홍, 2005). 다시 말해, 갈등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이성관계의 만족과 그 질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성관계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나 행동은 어떤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접근을 한 연구들은 가족관계나 가족상담 영역에서도 관심을 끌어들였다. 그

이유는 이성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원가족, 특히 부모의 부부관계와 관련된 변인이 많이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가족치료자인 Bowen은 인간가족은 자연체계이며, 가족 그 자체만으로 정서적 단위이고 온전한 실체인 하나의 정서체계라고 하였다. 그가 제시한 대표적인 개념인 자아분화는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분리하거나 자신과 타인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이러한 자기분화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해지는데, 부모의 만성적 결혼갈등과 자녀의 역기능은 관련이 된다(Kerr & Bowen, 2005). 아버지와 어머니 간의 관계에서 유래된 긴장과 융합의 결과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 그 개인의 미래관계에서 다시 재현하기 쉬우며 이는 이성관계에서 미해결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Anderson & Sabatelli, 2016: 105-106). 특히 Sabatelli와 Anderson (1991)은 이러한 부모의 부부관계를 포함한 가족 체계의 역동에 대해 지각한 바가 청소년 자녀들의 심리적 적응이나 또래관계, 이성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갈등이 발생할 경우 문제해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

영·유아기를 지나 청소년기에 이르면, 인간관계는 친구관계 등의 다양한 대인관계로 확장되었다가, 성인기에 접어들면서는 이성관계가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학생 시기는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이성교제를 경험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성교제에 있어서 부모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에게 돌봄을 통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사실상 부모는 그들이 하는 행동으로도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즉, 부모의 행동을 자녀가 관찰함으로써 형성되는 간접적인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부모가 서로 간에 행하는 행동까지도 아

동에게는 모델링이 되어, 이후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Bandura, 1977: 김종술, 2007에서 재인용). 부모가 서로 간에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한다면 자녀는 부모에 대한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박선미, 박경, 2003). 따라서 자녀가 부모의 부부관계를 어떻게 인지하거나 지각하고 있는 지가 그들의 이성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Bowen의 가족치료이론에서 제시하는 다세대 전수과정, 혹은 사회학습이론을 바탕으로 부모의 부부관계를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따라 자녀 세대의 인간관계나 이성관계의 갈등이나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내에서도 경험적으로 입증한 선행연구들(서정숙, 2010; 여현심, 강순화, 2017)이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에 영향을 미쳐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적응상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되었다(Buchler & Gerard, 2002). 또 아동이 부부갈등에 노출될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여 사회불안을 많이 느끼는 등 정서적 문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노지형, 송현주, 2008), 부부갈등을 지각한 청소년의 신체적 공격성이 더 높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채유경, 2005). 또 부모 간 갈등이 자녀의 성별에 상관없이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부부갈등 자체만으로 자녀의 공격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김진희, 조옥귀, 2014). 이외에도 가족안의 관계가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가족관계 속에서 처음으로 경험한 사회적 갈등해결방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화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윤일, 2000).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나 부부갈등의 지각이 이후 친구관계에서의 갈등해결전

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안윤일, 2000; 하지원, 김광웅, 2005; 홍선표, 2008)는 국내에서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이를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부모의 부부관계에 대한 자녀의 지각은 이미 성장과정에 형성되며, 이성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녀는 부모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따라서,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 즉 갈등 해결과 같은 변인들을 통해서 이성관계 증진을 위한 시도를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이성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갈등해결 기술을 바꾸어 관계를 증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행동 자체만이 아니라 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지각적·인지적 특성을 먼저 고려하여야만 지속적인 행동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났다(안수진, 1997). 이는 갈등해결 전략 기술을 익혀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며, 보다 근본적인 내면의 특성을 파악하여 개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반영한다.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이고 성격적인 특성이면서도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개인의 정서지능에 주목하여, 이것이 이성관계 갈등해결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정서지능은 기본적으로 타고난 기질이 바탕이 되지만 후천적 경험을 통하여 개발되고 발달되는 것이 훨씬 크다고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서지능은 유전적, 기질적 요인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가정이나 부모, 학교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얼마든지 발달할 수 있다(이보미, 2010). 대인관계와 정서지능의 관계를 살펴 본 선행 연구에 의하면, 가족관계나 동료관계가 정서지

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Mayer, Caruso, & Salovey, 1999; Salovey et al., 2001). 국내에서도 부모의 부부관계가 자녀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한 선행연구(김진희, 임지영, 2013)가 발표된 바 있다. 또 부부갈등의 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의 정서지능은 높아지고, 부부갈등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정서지능은 낮아진다고 보고가 있으며(홍선표, 2008), 특히 부부갈등의 빈도 자체보다는 이를 해결하고, 아동에게 어느 정도 위협적으로 느껴졌는지에 따라 자녀의 정서지능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순(2009)은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인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활용에서 정서적 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정서지능은 지능에 대한 대안적 관점인 다중지능의 개인 간 지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자신이 느끼는 기분, 정서 및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알고, 자신의 느낌을 자신의 내면과 상황적 요구에 맞도록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으로서(Mayer & Salovey, 1997), 혼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Goleman(1995)은 정서를 사려 깊게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정서는 인지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간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인지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하며,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의 성공과 적응은 머리의 힘인 지능이 아니라 가슴의 힘인 정서지능에 좌우된다고 주장하였다(심혜숙, 왕정희, 2001에서 재인용).

한편,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자기감찰을 더 잘하고, 더 공감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기술도 높아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chutte et al., 2001). 또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쾌활하며 책임감과 동정심이 강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등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용린, 1996).

이러한 정서지능의 역할은 갈등해결전략과 연관해서도 주목을 받아왔다. 즉, 정서지능 개념이 출현한 이후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갈등 상황에서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갈등을 유연하게 해결하는 능력이 더 높을 것이라 제시되었고(Goleman, 1995; Mayer & Salovey, 1997),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인 정서 조절 능력이 뛰어나면 갈등 상황에서 더 이성적이고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어, 타인과의 갈등이 적다는 경험적 지지 증거가 있다(Lopes et al., 2010).

같은 맥락에서,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타인과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이성관계 안에서도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관계를 맺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을 구성하는 '정서 인식·표현', '감정이입', '정서사고촉진', '정서활용', '정서조절' 등 5개의 하위요인은 대인관계에서의 자기표현, 타인 이해 및 문제해결과 관련성이 크다고 하였고(Mayer & Salovey, 1997),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도 하다(임수진, 이재신, 2017). 또 높은 정서지능은 대인관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갈등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타내고 있다(김선주, 2002; 김윤희, 강민주, 2010; 심혜숙, 왕정희, 2001; 이민영 외, 2006; 임수진, 이재신, 2017).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인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활용, 정서조절이 각각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이 많았다. 정서인식과 정서표현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연구를 살펴보면 정서를 잘 인식하고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주, 2002; 이민영 외, 2006). 감정이입을 잘 하는 경우 갈등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감정이입이 떨어지는 경우 갈등해결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Warden & Mackinnon, 2003). 정진미와 유현실(2013)의 연구에서도 공감능력이 긍정적인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선표(2008)의 연구에 따르면 정서지능이 높은 아동의 경우에 정서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정서지능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하는 하위영역인 정서조절은 긍정적인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향순, 2007; 하지원, 김광웅, 2005).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시기에서 발달과업 상 상당히 중요한 이성관계에서의 갈등해결전략은 원가족에서의 부모의 부부관계의 역동이나 학습에 의해 영향 받을 가능성이 크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정신적 성숙성과 관련될 수 있는 자녀의 정서적 지능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가정이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도출한 문제의식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가 이성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두 변수의 관계에서 그들의 정서지능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갈등해결전략을 긍정적 갈등해결전략과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이는 내용적·기능적 차원에서 이 두 갈등해결전략이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Unger et al., 1998).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 속하는 '이성적 갈등 해결', '긍정적 감정 표현', '외부 도움 요청'은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에 속하는 '회피', '부정적 감정·행

동 표출'과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한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기능으로 살펴볼 때도 대인관계의 맥락 속에서 볼 때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비해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해내기가 어렵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는 자녀의 (긍정적/부정적)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자녀의 정서지능은 부모의 부부관계가 그들의 (긍정적/부정적)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통제변인은 부모의 부부관계,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 정서조절과 관련한 선행연구들(김나리, 2002; 김민정, 2016; 민순옥, 2009; 이지영, 2015; 황여주, 2013)을 참고하여 조사 대상자의 이성관계와 관련된 변인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구별하여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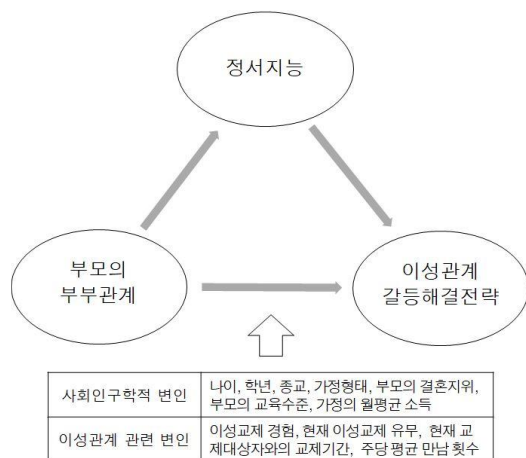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경기 지역의 9개 대학에서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거나 최근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미혼의 대학생 남녀 44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48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44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0부를 제외한 410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구체적인 특징은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부모의 부부관계

본 연구에서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측정을 위해서는 유가호(1988)가 자녀가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인가를 고려하여 만든 부모의 사회-정서적 관계의 질에 대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척도는 생활철학의 유사, 성격의 조화, 여가활동의 동반, 심리적 위로, 대화, 애정 표현, 의견일치, 화해, 금슬 등의 '심리적 조화'(예: 심리적으로 어려울 때 부모님은 서로 위로를 잘한다), 의견 충돌, 폭력 사용, 심한 언사의 사용, 부조화 등의 '갈등'(예: 우리 부모님 사이에는 의견충돌이나 부부싸움이 자주 일어난다), 부의 가사 협조, 부의 자상함, 좋은 남편, 훌륭한 가장 등의 '부의 협조성'(예: 우리 아버지는 집안일에서 어머니를 잘 도와주신다), 좋은 아내, 주부 역할을 잘함 등의 '모의 역할'(예: 우리 어머니는 주부로서의 역할을 잘하신다)을 포함하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총 20개의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식 척도를 통하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 인	내 용	빈도(%)	변 인	내 용	빈도(%)
성별	남	198 (48.3)	가족형태	핵가족	337 (82.2)
	여	212 (51.7)		확대가족	38 (9.3)
학년	1학년	81 (19.8)		한부모 가족	30 (7.3)
	2학년	94 (22.9)		조손 가족	5 (1.2)
	3학년	97 (23.7)	부모의 결혼지위	초혼	356 (86.8)
	4학년	138 (33.7)		이혼	29 (7.1)
나이	20세	71 (17.3)		재혼	16 (3.9)
	21세	63 (15.4)		별거	4 (1.0)
	22세	58 (14.1)		사별	5 (1.2)
	23세	49 (12.0)	부모의 교육수준	고등졸업 미만	25 (6.1)
	24세	59 (14.4)		고등학교 졸업	137 (33.4)
	25세	51 (12.4)		대학교 졸업	199 (48.5)
	26세	31 (7.6)		대학원 이상	49 (12.0)
	27세	28 (6.8)	가정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5 (3.7)
종교	기독교	172 (42.0)		100-200만원 미만	32 (7.8)
	불교	17 (4.1)		200-300만원 미만	67 (16.3)
	천주교	36 (8.8)		300-400만원 미만	85 (20.7)
	무교	185 (45.1)		400-500만원 미만	91 (22.2)
				500만원 이상	120 (29.3)
이성교제 경험	1회	150 (36.6)	현재 이성교제 유무	유	157 (38.3)
	2회	115 (28.0)		무	253 (61.7)
	3회	72 (17.6)	현재 교제대상자와의 교제기간	3개월 미만	39 (9.5)
	4회	34 (8.3)		3-6개월 미만	21 (5.1)
	5회 이상	39 (9.5)		6개월-1년 미만	25 (6.1)
주당평균 만남횟수	1번 이하	83 (20.2)		1년-1년 6개월 미만	25 (6.1)
	2번	144 (35.1)		1년 6개월-2년 미만	16 (3.9)
	3번	86 (21.0)		2년-3년 미만	17 (4.1)
	4번	40 (9.8)		3년 이상	14 (3.4)
	5번	30 (7.3)			
	6번 이상	27 (6.6)			

여 평가되었다. 6개의 역채점 문항에 대해서는 반대로 점수를 주어 20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였

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질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전체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4, 하위 요인별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심리적 조화 .93, 갈등 .85, 부의 협조성 .81, 모의 역할 .82로 나타났다.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

본 연구에서의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은 김지현(2006)이 선행연구들(김나리, 2002; 박지숙, 2001; 최규련, 1994)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갈등대처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성관계 안에서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 척도는 긍정적인 갈등해결 전략과 부정적인 갈등해결전략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5개의 하위요인(3개의 긍정적인 갈등해결 전략, 2개의 부정적인 갈등해결전략)으로 구분된다. 3개의 긍정적인 갈등해결전략은 갈등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과 관련되는 '이성적 갈등해결'(예: 이성친구와 협상이나 타협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야기 한다), 긍정적이면서 정서에 호소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들인 '긍정적 감정표현'(예: 이성친구의 화를 풀어 주기 위해 애교를 부린다), 주변의 권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 등에게 도움을 구하는 방법 등을 나타내는 '외부 도움요청'(예: 친한 친구나 동료와 상의한다)이다. 2개의 부정적인 갈등해결 전략은 갈등상황을 회피하는 방법들인 '회피'(예: 충돌을 피하기 위해 내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동을 표출하는 방법 등의 '부정적 감정·행동 표출'(예: 이성친구에게 흥분해서 큰 소리를 지른다)로 구성되어 있다.

총 30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식 척도를 통하여 평가되었다.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이에 해당하는 갈등해결전략을 자주 사용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갈등해결전략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를 살펴보면, 긍정적 갈등해결 .78, 부정적 갈등해결 .78이었다.

정서지능

문용린(1998)이 Mayer와 Salovey(1997)의 정서지능의 수정모형에 입각하여 제작한 성인용 정서지능검사를 사용하였다. Mayer와 Salovey(1997)의 모형에서는 감정이입이 정서인식·표현에 포함되어 있으나, 문용린이 개발한 정서지능검사에서는 한국인의 특성을 부각시켜 감정이입을 독립적인 영역으로 구성하였다(정진선, 2002).

자신과 타인의 정서상태를 알고, 상황에 맞게 이해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지 알아보는 내용을 반영하는 '정서인식·표현'(예: 나는 나의 감정이나 기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편이다),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그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감정이입'(예: 다른 사람이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켜보면 기분이 좋다), 정서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정서사고촉진'(예: 나는 내가 실수를 했을 때 타인에게 불쾌한 기분이 유발되리라는 것을 생각하는 편이다), 정서에 대한 이해능력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인간관계를 향상시키는 데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정서활용'(예: 나는 화가 나면 왜 이런 기분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먼저 생각해본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상태로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기분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의 '정서조절'(예: 나는 화가 많이 나더라도 다른 사람의 기분을 고려하여 참는다)을 포함하는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50문항으로 척도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방식

표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1															
2	-.02	1														
3	-.27 **	.80 **	1													
4	.03	-.08	-.04	1												
5	.02	.06	-.02	.01	1											
6	-.06	.11 *	.02	-.01	.38 **	1										
7	.07	-.10	-.11 *	-.01	-.06	-.17 **	1									
8	.04	.01	.05	.13 **	-.20 **	-.27 **	.26 **	1								
9	-.08	.14 **	.12 *	.11 *	.01	.03	.00	.09	1							
10	-.04	-.10 *	-.12 *	-.04	-.01	.03	.00	-.08	-.22 **	1						
11	.05	.33 **	.30 **	-.11	.15	.06	-.13	-.08	.00	a	1					
12	-.05	-.14 **	-.11 *	.10	-.02	.02	.00	.02	.12 *	-.21 **	-.16 *	1				
13	.09	-.08	-.08	-.01	-.19 **	-.33 **	.28 **	.36 **	.02	-.09	-.12	-.19	1			
14	-.19 **	.01	.04	-.21 **	-.07	-.01	.12 *	.07	-.03	-.04	-.16 *	.01	.22	**1		
15	.10	-.03	-.09	-.02	-.02	.02	-.05	-.11 *	.03	.14 **	.10	.02	-.27 **	-.17 **	**1	
16	.04	.04	.01	-.03	-.11	-.05	.06	.12 *	.06	-.06	-.01	-.08	.31	**	.43 **	-.42 **1

** $p < .01$, * $p < .05$

a. 하나 이상의 변수가 상수이므로 계산 불가

1.성별 2.학년 3.나이 4.종교 5.가족형태 6.부모결혼지위 7.부모교육수준 8.월평균소득 9.교제경험 10. 현재교제유무
 11.현재교제기간 12.주평균만남 13.부모의 부부관계 14.긍정적 갈등해결전략 15.부정적 갈등해결전략 16.정서지능
 가변수: 성별(남 0, 여 1), 종교(유 0, 무 1), 가족형태(핵가족 0, 핵가족 이외 1), 부모결혼지위(초혼 0, 초혼
 이외 1) 현재 교제 유무(유 0, 무 1)

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데, 13개의 역채점 문항에 대해서는 반대로 점수를 주어 각 하위요인별 점수와 총점을 계산하였다. 이 척도 문항들은 모두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정서지능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본 연구에서는 앞서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를 통하여 부모의 부부관계가 대학생의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나이, 학년, 종교, 가정형태, 부모의 결혼지위,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월평균소득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

인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성관계 관련변인

본 연구에서는 앞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를 통하여 부모의 부부관계가 대학생의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성교제 경험, 현재 이성교제 유무, 현재 교제대상자와의 교제기간, 주당 평균 만남횟수 등의 이성관계 관련변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Statistics 21.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포함한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부모의 부부관계가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하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부부관계가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를 정서지능이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Sobel 검정(Sobel, 1982)을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변인들의 상관분석

우선, 통제변수와 각 주요변수들의 상관분석에 대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 정서지능은 서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부부관계는 긍정적 갈등해결전략과 정서지능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부정적 갈등해결전략과 부정 상관이 있다. 또한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은 정서지능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은 정서지능과 부정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부부관계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이 인지한 부모의 부부관계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의 상관분석 결과를 토대로 회귀분석의 1단계에서는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넣고, 2단계에서는 이성관계 관련 변인을 넣어 그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3단계에서는 부모의 부부관계를 넣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Durbin-Watson 값은 1.84로 2에 근접하여 잔차 간에 자기 상관이 없었고, F 값도 4.49 ($p < .001$)로 유의하여 회귀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 공차한계가 .78~.97로 나타나 0.1보다 크고, VIF값은 1.29로 10이하의 값을 나타내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부모의 부부관계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은 그 상관관계가 .44로 나타났고, 이 모형은 19.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이성관계 관련 변인을 통

제한 후에도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부모의 부부관계($t=2.96, p<.01$)는 유의한 설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부모의 부부관계($\beta=.25, p<.01$)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이 인지한 부모의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부부관계 이외에 영향력을 발휘한 다른 변인으로 성별($\beta=-.24, p<.01$)과 부모의 교육수준($\beta=.17, p<.05$)이 있었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이 인지한 부모의 부부관계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부모의 부부관계가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미치

는 영향

대학생이 인지한 부모의 부부관계가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역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의 상관분석 결과를 토대로 회귀분석의 1단계에서는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가정 월평균 소득)을 넣고, 2단계에서는 이성관계 관련 변인(현재 교제 유무)을 넣어 그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3단계에서는 부모의 부부관계를 넣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Durbin-Watson 값은 1.85로 2에 근접하여 잔차 간에 자기 상관이 없었고, F 값도 7.04 ($p<.001$)로 유의하여 회귀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 공차한계가 .77~.99로 나타나 0.1보다 크고, VIF값은 1.29로 10이하의 값을 나타내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부모의 부부관계와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은 그 상관관계가

표 3. 부모의 부부관계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N=410$)

독립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공차
	β	t	β	t	β	t	
성별	-.22	-2.80 **	-.21	-2.73 **	-.24	-3.14 **	.97
통제							
변인							
종교	-.13	-1.63	-.142	-1.84	-.15	-1.96	.96
부모교육수준	.25	3.03 **	.228	2.83 **	.17	2.13 *	.83
현재 교제기간			-.141	-1.81	-.13	-1.66	.94
부모의 부부관계					.25	2.96 **	.78
Durbin-Watson						1.84	
전체 R^2	.13		.15		.20		
F	3.71 **		3.70 **		4.49 ***		

*** $p<.001$, ** $p<.01$, * $p<.05$

가변수: 성별(남 0, 여 1), 종교(유 0, 무 1)

표 4. 부모의 부부관계가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N=410)

독립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공차
		β	t	β	t	β	t	
통제 변인	가정 월평균소득	-.11	-2.05 *	-.10	-1.85	-.03	-.53	.81
	현재 교제 유무			.13	2.63 **	.11	2.29 *	.99
부모의 부부관계						-.29	-5.38 ***	.78
Durbin-Watson							1.85	
전체 R ²		.01		.03		.10		
F		1.35		2.48	*	7.04 ***		

*** $p<.001$, ** $p<.01$, * $p<.05$

가변수: 현재 교제 유무(유 0, 무 1)

.30로 나타났고, 이 모형은 10%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이성관계 관련 변인을 통제 한 후에도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부모의 부부관계($t=-5.38$, $p<.001$)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아도 부모의 부부관계($\beta=-.29$, $p<.001$)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이 인지한 부모의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을 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부부관계 이외에 영향력을 발휘한 다른 변인으로는 현재 교제 유무($\beta=.11$, $p<.05$)가 있었다. 이는 현재 교제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교제를 하고 있는 경우보다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이 인지한 부모의 부부관계가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부정적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

개효과

먼저,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에서 Durbin-Watson 값은 1.91으로 2에 근접하고, F값이 7.59($p<.001$)으로 회귀모형에 적합하였다. 공차한계가 .771로 0.1보다 크고, VIF값은 1.297로 10이하의 값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이성관계에서의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로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매개변수로 정서지능, 종속변수로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을 두고, 1단계와 2단계는 각각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3단계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단계의 회귀분석에서는 상관분석 결과 유의하게 나타난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종교, 부모의 교육수준)과 이성관계 관련변인(현재 교제대상자와의 교제기간) 등이 통제되었다. 검증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긍정적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R ²	ΔR^2	F
1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부모의 부부관계	.15	.05	.24	2.95 **	.19	.15	4.49 ***
2	정서지능	부모의 부부관계	.16	.02	.32	6.16 ***	.10	.09	9.82 ***
3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부모의 부부관계	.03	.05	.05	.64	.31	.27	7.59 ***
		정서지능	.51	.10	.39	5.12 ***			

*** $p < .001$, ** $p < .01$

NOTE: 성별, 종교, 부모교육수준, 현재 교제기간 변인이 통제되었음.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부모의 부부관계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4$, $p < .001$).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부모의 부부관계가 매개변수인 정서지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2$, $p < .001$). 3단계에서는 부모의 부부관계와 정서지능이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부모의 부부관계와 정서지능을 독립변인으로 같이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매개변수인 정서지능이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력($\beta = .39$, $p < .001$)이 유의하면서 부모의 부부관계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무의미한 수준으로 감소($\beta = .24 \rightarrow \beta = .05$)하였다. 따라서, 이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모두 만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3단계에서 부모의 부부관계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력이 무의미하므로 정서지능은 부모의 부부관계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을 완전매개함을 알 수 있다. 이런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Z = 3.95$, $p < .001$).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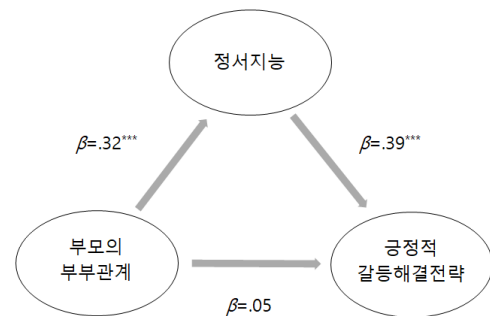
*** $p < .001$

그림 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긍정적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부정적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다음으로,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에서 Durbin-Watson 값은 1.85로 2에 근접하여 잔차간에 자기 상관이 없었고, F 값도 7.03($p < .001$)로 유의하여 회귀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공차한계가 .76~.98로 나타나 0.1보다 크고, VIF값은 1.28로 10이하의 값을 나타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6.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부정적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R ²	ΔR^2	F
1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부모의 부부관계	-.20	.03	-.28	-5.38 ***	.09	.08	7.03 ***
2	정서지능	부모의 부부관계	.16	.02	.32	6.16 ***	.10	.09	9.82 ***
3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부모의 부부관계	-.11	.03	-.16	-3.23 **	.21	.20	15.91 ***
		정서지능	-.53	.06	-.37	-7.91 ***			

*** $p < .001$,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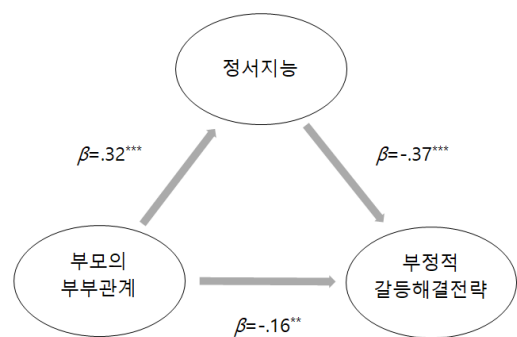
NOTE: 가정 월평균 소득, 현재 교제 유무 변인이 통제되었음.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이성관계에서의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로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매개변수로 정서지능, 종속변수로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을 두고, 1단계와 2단계는 각각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3단계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단계의 회귀분석에서는 상관분석 결과 유의하게 나타난 사회인구학적 변인(가정 월평균소득)과 이성관계 관련변인(현재 교제 유무) 등이 통제되었다. 검증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부모의 부부관계가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8$, $p < .001$).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부모의 부부관계가 매개변수인 정서지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2$, $p < .001$). 3단계에서는 부모의 부부관계와 정서지능이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부모의 부부관계와 정서지능을 독립변인으로 같이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매개변수인 정서지능이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력($\beta = -.37$, $p < .001$)이 유의하면서 부모의 부부관계가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beta = -.28 \rightarrow \beta = -.16$)

하였다. 따라서, 이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모두 만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3단계에서 부모의 부부관계가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므로 정서지능은 부모의 부부관계와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을 부분매개함을 알 수 있다. 이런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Z = -4.88$, $p < .001$).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 $p < .001$, ** $p < .01$

그림 3.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부정적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논 의

본 연구는 미혼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가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여, 가족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고, 또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서 정서지능이 매개하는지 검증하여, 개인내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영역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이성관계를 맺어나가는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인지한 부모의 부부관계는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과 정서지능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고, 정서지능은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 대학생이 인지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 정서지능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두 서로 간에 상관이 있었다. 대학생인 자녀가 인지하고 있는 부모의 부부관계의 질이 좋을수록 자신의 이성관계 안에서 긍정적인 갈등해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고, 반대로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상호작용이 자녀에게 모델이 되어 이를 습득한 자녀가 자신의 이성관계 안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가 서로 간에 하는 말과 행동들도 자녀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서정숙, 2010; 여현심, 강순화, 2017).

한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질은 정서지능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부갈등에 많이 노출될수록 정서지능이 낮다는 다른

선행연구결과들(홍선표, 2008; 김혜순, 2009)을 고려해서 살펴보면, 부모가 서로 간에 안정적이고 편안한 정서적 관계를 맺는 것은 이를 필연적으로 지켜보게 되는 자녀에게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정서지능을 발달시켜 줄 수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부모의 부부관계는 자녀가 대학생이 되는 시기에도 정서적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모의 부부관계를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도 필요함을 시사 받을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자녀의 정서지능의 매개적 영향이 주요 초점으로 다루어졌으나, 지각된 부모의 부부관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대학생 자녀의 정서지능과 관련을 갖는 부모의 부부관계에 대한 심리정서적 측면의 서비스 지원에 대한 시사점도 간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서지능과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을 살펴보면,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이성관계 안에서 긍정적인 갈등해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부정적인 갈등해결전략을 덜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김선주, 2002; 김향순, 2007; 이민영 외, 2006; 하지원, 김광웅, 2005; 홍선표, 2008). 이는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할 수 있고, 타인의 감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에 있어 부정적인 방법보다 긍정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둘째, 부모의 부부관계는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대학생이 인지한 부모의 부부관계가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인, 이성관계 관련 변인을 통제하고도 이성관계의 긍정적,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부모의 부부관계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체계이론(Anderson & Sabatelli, 2016: 105-106; Kerr & Bowen, 2005)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자녀가 원가족에서 겪은 부모의 부부경험이 현재 자신이 겪는 부부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7: 김중술, 2007에서 재인용)에 근거하면, 부모가 하는 의사소통, 행동 등을 배워 자녀는 자신의 이성관계에서의 행동이 그대로 모방이 된다. 더 나아가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애착의 형성에도 부모의 부부관계가 긍정적일 때, 자녀도 불안하거나 혼란한 애착이 아닌 안정적인 애착을 맺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때, 결국 이성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부부관계에 대한 상담적 개입이 있다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모의 부부관계는 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그 관계에 대한 개입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자녀로 하여금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서지능을 도입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셋째, 정서지능은 부모의 부부관계와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다. 대학생이 인지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서는 정서지능이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부모의 부부관계에서 정서지능이 독립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가 인지한 부모의 부부관계가 좋을 경우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결과 정서지능이 높은 자녀는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서 보다 긍정적인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긍정적 갈등해결전략과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으로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부모의 부부관계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서 정서지능은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부모의 부부관계가 좋을 경우 정서지능의 수준이 높아지도록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높은 정서지능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돕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정서지능이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부모의 부부관계 영향력을 무의미하게 감소시킴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 자녀에게 있어서 자녀의 이성관계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부모의 부부관계에 대한 개입보다 정서지능을 통한 개입이 효과적인 수 있음을 시사 받을 수 있다.

한편, 부모의 부부관계와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에서는 정서지능이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자녀가 인지한 부모의 부부관계가 좋을 경우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결과 정서지능이 높은 자녀는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을 더 적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서지능은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부모의 부부관계 영향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정서지능을 높이는 것으로도 이성관계에서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을 덜 사용하도록 도울 수 있지만, 여전히 부모의 부부관계가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정 정서가 긍정 정서보다 더 기억에 강렬하게 남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정서지능은 대학생이 인지한 부모의 부부관계가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특성임을 알 수 있으며, 부모의 부부관계가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과정에서 개입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유추해볼 때, 대학생들의 경우 정서지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략을 고안하여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의 기술을 증진시키고 이성관계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모들의 부부관계

가 그들의 이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대학생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들의 부부관계에 개입하기보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대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대학생 시기는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시기이기도 하므로, 자신들을 중심으로 대처해 나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인초기에는 부모의 부부관계와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을 매개하는 정서지능을 높이고 확장하는 것도 이성관계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서지능을 높이기 위한 상담 및 교육적 개입을 할 때에는 연령 등 발달단계별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 개발된 정서지능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가장 많다(강연희, 2008; 강인설, 정계숙, 2006; 박윤정, 2003; 서미숙, 2006; 신현정, 2006; 노성향, 이운경, 2004). 이는 유아 및 아동의 시기가 정서능력을 만들어가는 결정적 시기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최근 뇌과학이나 신경과학, 그리고 진화생물학(신경인문학연구회, 2016; 장대익, 2017; 최현석, 2011; de Waal, 2017)등의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융합적 연구를 통해 조명을 받고 오히려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인간의 감성이며, 특히 유아 및 아동의 감성 지능 향상과 공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 시켜준 캐나다에서 시작한 '공감의 뿌리' 교육(Gordon, 2010)은 그 반향이 상당히 커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방송매체 등에 소개된 바 있다.

현재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서지능 발달 프로그램은 유아 및 아동에 비해 많지 않고,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아도 신입사원 연수 프로그램, 부모를 위한 EQ프로그램(문용린, 1998) 등의 그 수가

적다. 그 중에서도 성인초기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현저히 적은 편이다. 그러나 정서지능은 유아 및 아동을 지난 성인기에도 프로그램 등의 개입을 통해서 충분히 발달될 수 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서지능 발달 프로그램을 개발한 한 연구(김빛나, 2016)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 대학생 시기에도 정서지능은 충분히 발달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다시 말해, 성인초기, 성인기에도 적절한 개입을 통하여 정서지능이 개발 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주목하여 향후 필요한 전략들이 도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성관계 갈등해결 전략 측정도구는 김지현(2006)이 여러 선행연구들과 측정도구를 종합하여 제작한 것을 이용하였다. 대부분의 많은 이성관계 연구가 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미혼의 이성관계를 위한 측정도구가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에 적합한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척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교제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현대 사회 상황에 맞춰 이성교제 대상자에 맞는 정교한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단순화한 변인들을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하지만 부모의 부부관계, 갈등해결전략, 정서지능과 같은 체계들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위요인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더불어 다양한 독립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족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더 효과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의 경우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측면은 한

사람 안에 모두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나누어 접근할 때, 인간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다소의 한계를 지닐 수 있다. 한 인간이 어떤 행위를 행할 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선명하게 분리하여 행동할 수도 있지만, 혼합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의 특성을 볼 때 인간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모의 부부관계가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며, 특히 성인초기인 대학생들의 이성관계 안에서 갈등을 다루는 것에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부모의 부부관계를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이후 어떤 이성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을지를 예측해볼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가족 안에서 자녀에게 대하는 부모의 행동뿐만 아니라 부모가 부부 간에 보이는 행동도 자녀에게 매우 중요하며, 부모의 부부관계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서지능은 부모의 부부관계에 영향을 받지만, 정서지능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개인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를 통해 부모의 부부관계가 안 좋더라도 정서지능을 통해서 이성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음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 있어 정서지능의 매개효과와 더불어 하위요인별 매개효과도 함께 확인하였다. 이는 정서지능을 높이기 위한 상담 및 교육적 개입을

할 때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개입이 상담의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 정서지능에 대한 상담사들과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이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가 상담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수정, 유금란 (2016).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적응적 유머스타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7(4), 275-294.
- 강수진, 최영희 (2011).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양식과 사회불안을 매개변인으로. *인간발달연구*, 18(3), 53-68.
- 강연희 (2008). 정서지능강화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정서능력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강인설, 정계숙 (2006). 놀이성이 낮은 유아를 위한 정서지능 프로그램 효과 연구. *유아교육학회지*, 15(1), 49-72.
- 곽윤정 (1997). 정서지능의 발달 경향성과 구인타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나리 (2002).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애착이 갈등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기분 조절 기대치를 매개변인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나영 (2003). 대학생 이성관계에서 애착과 자의식 및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김민녀, 채규만 (2006).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기혼

- 자의 결혼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 (4), 655-671.
- 김민정 (2016). 대학생의 불안정 애착과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 간의 관계: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빛나 (2016). 대학생의 정서지능향상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김선주 (2002). 유아의 정서지능과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윤희, 강민주 (2010). 사회적 유능성에 형제유무와 정서지능이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31(3), 199-214.
- 김중술 (2007). 사랑의 의미.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지현 (2006). 조망수용, 관계귀인, 갈등대처행동 및 이성교제 만족도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김진희, 임지영 (2013). 다문화가정 부부관계가 유아의 또래관계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일반가정유아를 비교대상으로. 부모교육연구, 10(1), 23-52
- 김진희, 조옥귀 (2014). 중학생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중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6(1), 17-30.
- 김향순 (2007).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 조절능력 및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김혜순 (2009). 부부갈등이 아동의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김희경, 심혜숙, 이동훈 (2012).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 명확성과 정서표현 억제의 매개효과. 한국계슈탈트치료연구, 2(2), 1-21.
- 노성향, 이윤경 (2004). 방과후 정서지능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방과후아동지도연구, 1(1), 53-71.
- 노지형, 송현주 (2008).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및 부모양육태도와 사회불안과의 관계.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7(2), 75-90.
- 문용린 (1996). 한국 학생들의 정서지능 측정 연구.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 Peter Salovey 교수 초청 강연 자료집(pp.77-80). 서울: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문용린 (1998). EQ가 높아졌어요: 부모 교육프로그램. 서울: 지역사회교육협의회.
- 문용린 (2009). 평범한 사람도 비범한 성취를 가능케 하는 지력혁명. 서울: 비즈니스북스.
- 민순옥 (200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과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이성관계 태도가 결혼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박나현 (2016). 미혼 성인남녀의 성인애착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적지지 추구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박선미, 박 경 (2003). 미혼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부모와의 애착이 자녀의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3(1), 69-84.
-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 박지숙 (2001). 청소년기 이성관계에서의 갈등협상 전략과 자아중심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산대학교.
- 서미숙 (2006). 정서지능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정서지능과 교육관계에 미치는

-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서정숙 (2010). 부모 부부갈등과 기혼자녀 부부갈등의 관계에서 부모 양육태도와 기혼자녀의 자아탄력성, 성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 신경인문학연구회 (2016). 뇌과학, 경계를 넘다. 서울: 바다출판사.
- 신현정 (2006). 정서지능 교육 프로그램이 정서지능과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심혜숙, 왕정희 (2001).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63-175.
- 안수진 (1997). 신경증적 경향성과 결혼만족도: 책임귀인 양식과 문제해결행동의 매개변인 검증.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안윤일 (2000).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 대인문제해결력과 사회적 선호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여현심, 강순화 (2017). 중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4(5), 79-105.
- 유가호 (1988). 청년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 상호작용과 자녀의 부모에 대한 동일시 및 자녀의 결혼 태도간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이민영, 김광웅, 조유진 (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행동통제특성과 정서지능 및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아동학회지, 27(6), 149-175.
- 이복동 (2000). 성인 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거부민감성과 귀인 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이설아, 박기환 (2013). 유기 도식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3(1), 1-17.
- 이수연 (2010). 대학생의 행복척도 개발 및 구인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7(2), 107-122.
- 이지영 (2015). 성인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결혼이미지가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임수진, 이재신 (2017).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중등교육연구, 65(1), 173-194.
- 장대익 (2017). 울트라소셜. 서울: 휴머니스트.
- 정 민, 장안나 (2009). 대학생의 자아개념과 대인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0(2), 669-681.
- 정옥분 (2004). 발달심리학: 전생애 인간발달. 서울: 학지사.
- 정지은, 손은정 (2016).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이성관계 만족도 사이에서 정서인식 명확성과 정서조절의 매개역할: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상담학연구, 17(5), 399-420.
- 정진미, 유현실 (2013). 성인애착유형과 공감수준에 따른 부부 갈등해결전략의 차이. 상담학연구, 14(3), 1535-1550.
- 정진선 (2002).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이 진로 의사결정효능감 및 진로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차정화, 전영주 (2002). 이성교제 커플의 원가족 건강성과 친밀감간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39-57.
- 채유경 (2005).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기능성, 부부갈등, 영적 안녕 및 공격성 간의 관계. 가족과 문화, 17(2), 189-209.
- 최규련 (1994). 가족체계 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 최현석 (2011). 인간의 모든 감정. 서울: 서해문집.
- 하지원, 김광웅 (2005).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 및 정서조절능력이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아동연구*, 18(1), 13-32.
- 허선이 (2006).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애착 및 갈등해결전략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홍대식 (2005). 결혼의 질과 지속의사에 관련된 혼전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2), 67-90.
- 홍선표 (2008).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정서지능이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황여주 (2013). 미혼 남녀의 정서조절과 이성관계만족도 관계에서 갈등대처방략의 매개효과 갈등빈도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Anderson, S. A., & Sabatelli, S. A. (2016). 다세대 발달관점의 가족관계{*Family interaction: A multigenerational developmental perspective*}. (정문자, 정현숙, 정혜정, 전영주, 정유진 공역). 서울: 학지사.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uchler, C., & Gerard, J. M. (2002). Marital conflict in effective parenting, and child's and adolescents' mal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1), 15-78.
- de Waal, F. (2017). 공감의 시대{*Age of empathy*}. (최재천 역). 서울: 김영사(원전은 2009에 출판).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Gordon, M. (2010). 공감의 뿌리{*Roots of empathy*}. (문화경 역). 서울: 산티(원전은 2009에 출판).
- Kerr, M. E., & Bowen, M. (2005). 보웬의 가족치료 이론{*Family evaluation: An approach based on Bowen theory*}. (남순현, 전영주, 황영훈 공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1988에 출판).
- Lopes, P. N., Nezlek, J. B., Extremera, N., Hertel, J., & Fernández Berrocal, P. (2010). Emotion regulation and the quality of social interaction: Does the ability to evaluate emotional situations and identify effective responses matter? *Journal of Personality*, 79(2), 429-467.
- Mayer, J. D., Caruso, D., & Salovey, P. (1999). Emotional intelligence meets traditional standards for an intelligence. *Intelligence*, 27(4), 267-298
- Mayer, J. D., & Salovey, P.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 D. Sluyter(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educators*(pp. 3-31). New York: Basic Books.
- Sabatelli, R. M., & Anderson, A. S. (1991). Family system dynamics, peer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Family Relations*, 40(4), 363-369.
- Salovey, P., Mayer, J. D., Caruso, D., & Lopes, P. N. (2001). Measuring emotional intelligence as a set of mental abilities with the MSCEIT. In S. J. Lopez & C. R. Snyder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assessmen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chutte, N. S., Malouff, J. M., Bobik, C., Coston, T. D., Greeson, C., Jedlicka, C., Rhodes, E., & Wendorf, G. (2001).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 141(4), 523-536.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 Unger, J. B., Kipke, M. D., Simon, T. R., Johnson, C. J., Montgomery, S. B., & Iverson, E. (1998).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among homeless youth.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3(2), 134-157.
- Warden, D., & Mackinnon, S. (2003). Prosocial children, bullies and victims: An investigation of their sociometric status, empathy and social problem-solving strategies. *Th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Leicester*, 21(3), 367-385.
- 원고 접수일 : 2017. 12. 15.
수정원고 접수일 : 2018. 05. 31.
게재 결정일 : 2018. 06. 01.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s' Marital Relationship on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in Courtship among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Hanee Jo

Youn-Shil Choi

Sang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arents' marital relationships on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of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For this purpos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440 students who are attending 9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Data were analyzed using Pearson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marital relationship and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Second, there was a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its sub-fac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marital relationship and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In other words, according to the quality of parents' marital relation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of heterosexual relationship was changed, and as emotional intelligence was higher, more positive conflict management strategies were us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approach or strategy that can enhance and utilize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the children including improving parents' marital relationship quality in the educational or counseling practice.

Key words : college students, parents' marital relationship, heterosexual relationship,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emotional intelligence